

◆교회목표◆

천국일꾼을 키우자
지역사회에 봉사하자
우리 세대에 민족복음화를 이룩하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4)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오테회 편집국장: 조선근

헌신예배로 다져지는 예수사랑큰잔치

오늘 저녁 찬양예배는 헌신예배로

온 교우, 온 부서, 온 교구가 한마음으로 동참해야

예수사랑 큰 잔치가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이 잔치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런 점에서 이 잔치는 매우 크고 중요하다. 잔치를 배설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초청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이 초청을 더욱 더 구체화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이제 준비도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오늘 IV부 예배후 전교인을 대상으로 예수사랑큰잔치 설명회를 갖는다. 이 설명회에서는 예수사랑큰잔치의 목적 및 목표, 계획, 준비상황, 일정 등을 설명하고 전교인이 한마음으로 동참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장로, 교역자 특별기도회

또 금주 수요일(22일)부터는 장로와 교역자가 수요일 예배후에 베다니홀에서 기도회를 가져 기도운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 기도회는 예수사랑큰잔치가 끝날때까지 하게 된다.

수요일 예배후에는 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실시하는 구역일꾼 특별교육이 계속된다. 이 훈련은 교구일꾼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실시 되는데 이 훈련은 예수사랑큰잔치가 끝날때까지 하게 된다.

한편 교회에서는 오늘 태신자 카드를 작성하고 초청되어질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불러가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다. 태신자 카드의 작성과 제출의 의미는 그 동안에 기도로 준비되어진 사람들의 명단이 교구별로 확인되어지는 물론이거니와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기 위함이다.

오늘저녁 헌신예배

뿐만 아니라 이 잔치가 주님께 더 아름다운 잔치가 되고,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잔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는 헌신예배를 드린다. 이번 헌신예배는 형식적으로 순서에 의해서 진행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된다. 전쟁에 임하는 사람이 생명을 걸고 준비하여 나가 싸우듯이, 이 잔치를 위해서 게으르지 아니하며 열심을 품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구의 일꾼은 물론이요,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참여해야 한다. 으레히 있는 헌신예배려니 하고 '나 하나

뿐이야' 하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 우리의 헌신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잔치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지리라는 확신과 함께 온 교회가 동참해야 할 것이다.



▲ 지난해의 예수사랑큰잔치

원로목사·당회장 동정

김창민 목사

- 9월 20, 21일 제78회 총회참석
- 9월 22, 23일 낙도지역 교역자 수양회 부흥설교

당회장 신성종 목사

- 9월 20일 목회자 세미나 강의
- 9월 21일 청주 교도소 설교, 낙도지역 교역자 수양회 부흥설교
- 9월 22일 예수사랑 큰잔치를 위한 구역일꾼 특별교육 강의
- 9월 24일 크로스웨이 성경연구 강의

금주(9월 19~25일)에 행해지는 일들

1. 전체 설명회

- 오늘 4부 예배후 본당에서
- 전 교인을 대상으로 예수사랑 큰잔치의 의의와 계획, 진행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다.

2. 예수사랑 큰잔치 헌신예배 및 태신자를 위한 기도

- 오늘 저녁 찬양예배시
- 전 교인이 모여 예수사랑 큰잔치를 위한 헌신예배로 드린다.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열심으로 참여하는 마음을 갖도록한다.

3. 교구일꾼 특별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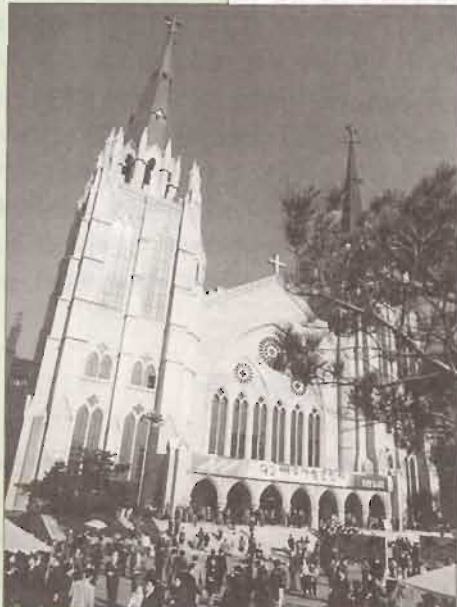
- 22일(수), 수요일 예배후, 본당에서
- 구역일꾼을 대상으로 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구역일꾼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강의한다.

4. 교역자 장로 기도회

- 22일(수), 수요일 예배후, 베다니홀에서
- 금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수요일 예배후 교역자·장로가 함께 모여 기도한다.

5. 교구별 24시간 연속기도회 계속

- | | |
|-------------------|-------------|
| · 9월 19일(주일)-19교구 | 20일(월)-20교구 |
| 21일(화)-21교구 | 22일(목)-23교구 |



교육연구소 지도에 장우천 강도사

교회는 그동안 공식으로 있던 교육연구소 지도에 장우천 강도사를 임명했다. 장 강도사는 금년 3월부터 우리 교회에 와서 그동안 청년2부 지도를 담당했었다.

장 강도사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수업(신학석사)을 하고 미주 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고 귀국하여 우리 교회에 왔다. 오는 10월 수도노회 임시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예정이다.

교육연구소는 시대적 변화와 이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및 보완을 통해 교회의 교육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 마련된 부서로 오래전부터 이런 필요가 있어왔다.

교육연구소는 앞으로

- (1) 교육정책의 연구, 제시를 통해 교회의 교육기능을 강화,
 - (2) 교육과정의 일관성확보를 통해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달성,
 - (3) 교회교육 전반에 걸친 교육정책의 분석, 평가를 통해 책임성 있는 교육정책 마련,
 - (4) 국내외 교회 등에 대한 교육모델 및 자료제시,
 - (5) 교육부서의 현안문제를 파악하며 개선하는 일 등을 목표로 삼고 일할 계획이다.
- 따라서 교회 내외적으로 교회교육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협력이 요망되고 있다.

윤삼중, 장우천 강도사 가을노회에서 목사안수

우리 교회에서 교육강도사로 일하고 있는 윤삼중(성경연구원 부지도), 장우천(교육연구소 지도) 강도사가 오는 10월 수도노회 임시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게된다.



현

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의 하나는 자녀들, 특별히 청소년들의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이 음주하는 것은 물론이고, 흡연, 마약, 그밖의 사탄음악에 심취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청소년들이 이런 데에 빠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저들이 들을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귀한 축복을 받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탄문화에 심취되고 타자의 문화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당시의 관례

그 당시에는 랍비나 장로 등 유명한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를 데리고가서 안수를 받게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저들을 예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부모들을 책망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꾸짖은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면서 오히려 꾸짖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말은 '상관치 말고 원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축복을 받아야 하고 기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한국의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만큼 어린아이들에 대한 강조를 하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원로목사님께서 "어린아이들은 다 목사님의 축복기도를 받아야 한다."고 하셔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 전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각 부서별로 가능하면 전임자를 두고 교육을 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영아부는 바로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주님의 축복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충현교회의 전통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전통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어린이를 금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했을까요? 여기에는 네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들도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즉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비록 어린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선천적으로 소경이고,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되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부터 심지어는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생각하듯이 순진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소경이고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도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어린아이들도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라고 죄책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린이 때부터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며 용서함을 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기도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그 마음에 참 평안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인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이, 어른, 노인 등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3. 제자들이 부모들을 꾸짖은 이유

왜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었을까요? 여기에는 네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나 무뎠다 보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보니 예수님의 목회사역과 복음전파에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돕는다는 그런 오해와 착각 속에서 아이들을 못 오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는 저들이 너무 어리다고

충현강단



어린이를 축복하신 예수님

(마 19:13-15)



신 성 중

<목사·당회장>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애들은 어른보다 더 잘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태복음 18장 3절 - 6절에 있는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제자들은 생각을 자기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데 아이들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른들이 우선 예수의 말씀을 들을 우선권(priority)이 있고, 어린이들은 그 다음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들을 때 아이들이 와서 방해할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문이 열린 사람이 먼저 듣는 것입니다. 어린이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어린이들도 하늘나라에 갑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어린이들이나 어른이나 그 영혼은 똑같이 계선이 됩니다. 어린이들도 어른과 똑같이 소중한 영혼입니다.

4. 예수님의 말씀의 뜻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금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14절) 하시면서 어린이들에게 안수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린이들의 좋은 점은 무엇입니

까?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이들은 절대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부모가 "이것을 해라" 하면 '예' 합니다. 그야말로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무슨 얘기를 하거나 설교를 해도 속으로 계산해서 이해관계를 따져보고 자기에게 손해가 나면 안합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안 그렇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편견없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른들은 자기가 살아온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액면 그대로 받아 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전도를 잘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간다' 그러면 집에 가서 부모들에게 '엄마 아빠 교회에 안 나가면 지옥가요' 그러면서 울고불고 야단하며 부모를 전도합니다. 이런

게 편견없이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계속 자라납니다. 네 번째 아이들의 특징은 겸손합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이 그릇이 새면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다 흘러버립니다. 기독교의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5. 본문의 교훈

첫째로, 저들이 어릴 때에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데려와야 합니다. 또 나오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나오려고 하는데 나오지 못하도록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두 번째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수록 효과가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바람직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이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나라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살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셋째로 사절에 이미 어린이의 성품 중 70%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어렸을 때에 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있는 쉼마교육을 해왔습니다. 쉼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말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은 어릴수록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른들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어른들이지만 어린이들의 좋은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어린이들처럼 우리도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처럼 주님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어린이들처럼 우리도 말씀을 편견없이 받아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처럼 우리도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대로 어린이들을 축복하신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를 도와 바른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어린이와 같이 순전한 아멘의 신앙을 소유하여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 되는 축복을 다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것



이 세상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저녁 노을이 지는 석양에 노루부기 마주보면서 평화롭게 앉아 있는 장면도 아름답거나 더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이다. 또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다. 베품은 손에 군살이 깨고, 양털색은 나지만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다치 구슬처럼 아름답다.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답게 처자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그러나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위니 워니 해도 남의 잘못을 용서하는 사랑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고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천일연지 주님을 닮아 누구보다도 용서의 선수가 되어야 할 기독교인들만큼 용서에 민첩한 사람들도 드문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글 / 신 성 중 목사

10월 17일, 93 예수사랑 큰잔치를 위한 안내

이번 93예수사랑 큰잔치의 날은 병든 자도 가난한 자도 외로운 자도 모여오는 천국잔치의 모형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명령을 준행하는 날입니다. 이 날에는 기어코 설득하고, 억지로라도 데려오고, 최선의 방법을 다하여 내 집을 채우는데 그 방법에는 정석이 없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명령 따라서 오직 빈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강권하여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편견을 가진 자들에게도 대꾸하지 말고 '와보라' 고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인생을 바르게 살도록 안내하는 바른 길을 보이실 것입니다. 울고 있는 사람이 웃을 수 있는 길, 절망에 빠진 사람이 희망을 찾는 길, 지옥을 가던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지를 보여주시고 노련한 안내자가 되시며 필요할 때는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준비는 완벽하였습니다. 자상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날 그 잔치는 분명히 마음이 뜨거워지는 날, 눈이 밝아지는 날, 듣고 본 사실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날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잔치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복음의 올바른 안내자, 올바른 길잡이가 됩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는 핑계와 변명을 버리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준비하여 풍성한 잔치가 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 오늘 태신자카드를 제출합니다 ●

태신자카드 작성 및 제출요령

사랑의 편지로 접촉점, 오늘까지 모두 제출해야

먼저 태신자란 무엇인가요? '믿음과 기도로 마음에 잉태한 전도 대상자'란 뜻입니다. 좀 더 넓게는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사랑의 접촉점 편지를 받은 모든 분들이 태신자가 되는 셈입니다.

사실 접촉점 편지를 받은 대상자들은 아직 마음 문이 닫혀진 상태이며 영적으로는 사탄의 권세에 묶여 있는 죽은 생명입니다. 그들은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있는데 죽었다니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자들은 몸은 살았으나 사실은 죽은 자들입니다.

◆ 지난 17일(금) 구역예배 시간에 작성한 태신자 카드(제출용)를 구역장에게 제출한 후, 보관용은 개인이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 구역을 통해 제출하지 못한 태신자 카드는 오늘(19일) 교구간사실(선교관 1층)에 제출합니다.

◆ 제출된 카드는 교구별로 집계되고, 오후 찬양예배 시간에 당회장 목사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 그 후 교구 교역자 책임하에 계속적인 기도와 점검이 있습니다.

▲ 태신자카드

전도용 공중전화카드 판매

전도 및 선물용으로 사용토록, 테이프판매소에서 판매

예수사랑 큰잔치에 초대하기 위해 선물을 사려해도 마땅치 않아서 망설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공중전화카드를 제작해서 판매하기로 했다. 일반 전도지에 비해 다소 많은 경제적인 투자가 요구되지만 전화카드를 다 쓸 때까지는 소지하기 마련이어서 전도효과는 훨씬 크다고 하겠다.

전도용 전화카드는 2천원, 3천원, 5천원권 등 세 종류가 있다. 교육관 테이프 판매소에서 구입해서 예수사랑 큰잔치 전도용(선물용)으로 사용하기 바랍니다.



▲ 우리 교회당 사진을 넣고 제작한 전화카드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편입니다.

두 마리의 투견이 서로 싸울 때 이들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인도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두 주인은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들의 투견을 쓰다듬고 여러 가지 말로 격려합니다. 여기서 만일 한 투견의 주인이 없다면 그 투견은 거의 반드시 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대장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힘이 되시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의 편지가 매 주일 나오고 있습니다

문답으로
알아본
사랑의 편지
활용법

교회는 교회 실정에 맞게 전도용 편지를 만들기로 하고 부교역자들이 중심이 되어 이를 작성, 제작하고 있다. 각 분야별로 나누어 내용을 작성하고 이를 수집하여 소설가인 이진숙 사모(신성종 목사 사모)와 동화작가인 변춘옥 전도사(출판국 부지도)가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마무리를 짓고 김광국 목사가 그 내용에 맞는 그림을 그림으로 일단 원고가 완성된다. 이 완성된 원고를 홍보실에서 편집, 도안하여 제작하여 온 교우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

▷ 우리 교회에서 발행되는 사랑의 편지는 몇 종류가 있습니까?

▶ 모두 12종류로 다음과 같은 고유번호를 가집니다.

- 1 - 유치부용 2 - 유년부용 3 - 초등부용 4 - 중등부용
- 5 - 고등부용 6 - 대학부용 7 - 청년부용 8 - 장년부용
- 9 - 주부용 10 - 소망부용 11 - 낙심자용 12 - 환우용



0번은 맨 처음 사람을 만날때 사용하는 접촉점 편지이며(그림 左), 10 - 2(그림 右)는 소망부용 두번째 편지입니다.

9월 5일 이후에 작성된 태신자는 제1신부터 차례대로 보내야하며 반드시 '사랑의 편지 발송표'에 체크해 나가야 반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랑의 편지는 각 종류별로 몇 신(信)까지 나오니까?

▶ 모든 편지가 종류별로 예수사랑 큰잔치까지 제6신이 나오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 사랑의 편지는 어떻게 작성합니까?

▶ 전화나 만남을 통하여 사랑의 편지를 받아보길 원하는 사람에게, 그 대상에 따라서 적절한 종류를 선택하여 제1신부터 보냅니다. 사랑의 편지 발송표의 각 항에 자세히 기록을 해두어야 다음 편지를 연결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 사랑의 편지를 우송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 사랑의 편지를 작성하여 구역장(구역예배 시간)에게 전달합니다. 구역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구역장에게 전달하며, 또 주일날 교구간사실(선교관 1층)에 교구간사에게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랑의 편지가 모여져서 오후 찬양예배 시간에 당회장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날 교회에서 발송됩니다.

▷ 사랑의 편지를 보낼 때에 주의할 점이 무엇입니까?

▶ 보내는 사람(반드시 자택주소와 우편번호를 기입할 것)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편번호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합니다.



예수사랑 큰잔치 홍보물을 적절하게 이용하세요!

1. 차량 스티커

각종 차량에 부착하여 우리 교회에서 예수사랑 큰잔치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우리 교우끼리 서로 격려하며 한 마음이 되도록 합니다.



2. 미니 스티커

책이나 기구 등에 부착하여 예수사랑 큰잔치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가지며 이런 마음들이 자연스레 전달되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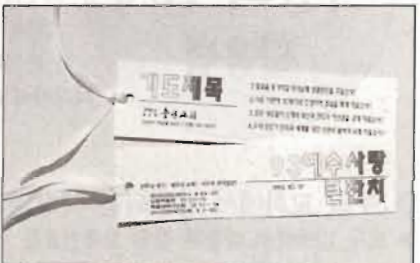
3. 팩

'예수사랑'이란 글자로 된 가슴에 부착할 수 있는 팩으로 이것을 달고 다니면서 예수사랑 큰잔치에 동참하는 마음을 더욱 분명히 한다.



4. 책갈피

예수사랑 큰잔치 홍보용으로 사용될 수 있고, 기도제목으로도 참고할 수 있다.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다함께 기도합시다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 김창인 목사님 : 9월20,21일(월,화)제78회 총회참석, 9월22,23일(수,목) 낙도지역 교역자 수양회 부흥설교
· 신성중 목사님 : 9월20일(월) 목회자세미나 강의, 9월21일(화) 청주교도소 설교, 낙도지역 교역자 수양회 부흥설교, 9월22일(수)예수사랑 큰잔치를 위한 교구 일꾼 특별교육 강의, 9월24일(금) 크로스웨이 성경연구 강의
2. 이 나라가 주님의 뜻대로 개혁이 되게 하시고 모든 불의가 사라지게 하소서.
3. 10월 17일 '93 예수사랑 큰잔치를 앞두고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힘써 전도하게 하소서.
4. 사랑의 편지를 각 교구마다 1000통 이상 보낼 수 있도록 영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5. 계속되는 교구일꾼 특별교육에 모두 참여하여 주신 직분을 바로 감당하게 하소서.

□ 예수사랑 큰잔치를 맞이하면서

사랑의 편지를 띄우려 합니다

이 상 옥
(집사, 제2교구)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볼때
주님은 그들을 진정 사랑하라 하심에
사랑의 편지를 띄우려 합니다.

회어져 추수할 곡식이 많다 하심에
성령님 앞서 가시어
마음문 여실 것을 기대합니다.

새벽 잠에서 눈이 뜨이는 순간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음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주님이 나의 영혼 다시 살리셨음에

말씀보며 잠잠히 묵상하는 순간
주님이 나에게 다시 깨닫게 하심에
감격스런 하루를 맞이합니다.

불쏘시개 한개로는 불 붙지 않음에
우리 모두 작은 사랑의 불쏘시개 되어

예수사랑 큰잔치에
사랑의 불을 붙여봅시다
성령의 불을 붙여봅시다
전도의 불을 붙여봅시다

□ 금주의 중현사진방 촬영계획 □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설립 마흔들을 맞으며 재직원 사진 앨범을 만들기로 하고 제직원 개인사진을 찍기로 했다. 사진은 선교관 407호에서 찍게되는데 매주 일 두 교구씩 정해진 시간에 가면 찍을수 있다. 촬영은 이승철 집사가 담당한다.

- 대 상 : 원로장로, 장로, 교역자, 원로집사, 집사, 원로권사, 권사, 명예직권사, 남여서리집사
- 촬영교구 : 9월 19일 / 제3교구, 제4교구
9월 26일 / 제5교구, 제6교구
- 촬영시간 : 주 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50분까지
- 촬영장소 : 선교관 407호(중현사진방)

작년 11월경이었다. 당시 18교구를 맡아 사역하는 중에 교구내에 있는 수서지역이 개발되고 있었다. 우리는 수서에 올라가는 아파트 빌딩들을 보며 꿈에 부풀었다. 이 넓은 곳에 복음을 속히 뿌려야 하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교구장 강협 장로님과 함께 수서를 돌며 모든 조사와 계획을 하였다. 이런 조사가 마무리 되어갈 무렵인 12월, 교구일꾼 발표때에 교회에서는 부족한 자를 전도위원회 지도목사로 임명하였었다. 이제는 한 교구만을 위해 일하는 목사가 아니라는 책임감이 들어 교회전체의 전도전략을 구상하는 중에 당회장 목사님은 먼저 신개발 도시를 조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시간을 내어서 분당, 평촌, 일산, 수서, 중동, 산본을 돌면서 상황을 보고했다.

목사님께서서는 결국 93년도에는 분당을 꼭 점령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셨다. 지금에 와서 보면 당회장 목사님의 예측은 적중한 것 같다.

92년 12월의 분당은 한참 개발되는 시간이었는데 우리는 심방 중에 틈틈히 시간을 내어 분당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분당구청을 둘러 정보를 얻고 그래도 부족하여 좀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토지개발 공사본부에 직접 찾아와 교구의 활성전략을 구상했다.

드디어 93년 1월 분당교구는 30가정 4구역으로 출발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교구는 불어나 지금은 17구역 145가구가 되었으니 정확하게 115가구가 불어

93예수사랑큰잔치를 맞으며

10월 8일, 교구 전진대회를 가지는 분당교구

임 성 환

(목사, 전도위원회·사랑부·23교구 지도)



난 셈이다. 교구가 불어나고 자체의 전도운동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교인들은 교통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다. 물론 중현의 기존 성도들은 어느정도 불편을 잘 감수했지만 재신자들의 상황은 달랐다. 열심히 전도해 놓으면 교통이 불편하다며 그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는 주변의 질문에 그만 주저앉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교구에서는 기도하면서 9월 19일부터 교구 자체기금으로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

연말까지 300가구의 목표를 정하고 교구장 김재명 장로님, 김정자 전도사님 외 모든 지역장, 부지역장, 구역장들과 함께 기도하며 전도운동을 펼치는 분당교구는 중현교회 모든 교구의 사랑을 받으며 커가고 있다. 한 교회의 교구가 태어나고 점차 23개의 전체 교구 한 부분의 지체로 커져가는 밀바탕에는 교회의 전체적인 사랑과 관심이 있다. 지금도 분당은 착암기의 땅 뚫는 소리로 시끄럽지만 그 소리를 들으며 삼방하는 우리의 마음은 분당이 너무나 정겹게 느껴진다. 이제 우리는 93년 예수사랑 큰잔치를 앞두고 작년에 시작할 때를 돌아보며 힘다해 전진하고자한다.